

<2018. 8. 18 시행 국가직 7급 공무원 문항 분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선사시대	1			
고대	9, 15			13, 14
중세	11	18		10
근세	2, 8			7
근대태동기				19
근대개항기	3, 6, 12			20
일제강점기	5, 17			16
현대	4			

< 총 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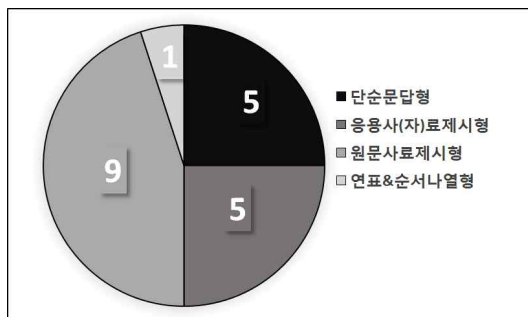
2018년 국가직 7급 한국사는 **작년 국가직 7급과 유사한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문항 유형은 단순문답형 문제가 5문제, 자료제시형이 15문제(원문자료제시형 9문제·응용자료제시형 6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순서나열형은 1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

시대사로는 전근대사가 12문제, 근현대사에서 8문제 출제되었다. 전근대사에서는 선사시대 1문제, 고대 3문제, 중세 3문제, 근세 3문제, 근대 태동기 1문제 출제되었다. 근현대사에서는 근대 개항기 4문제, 일제 강점기 3문제, 현대사 1문제가 출제되었다. 근대 태동기의 비중이 최근 다른 시험들보다 적었다.

분류사로는 **정치사가 12문제, 문화사가 7문제** 출제되었으며, **경제사가 1문제 출제되었다**. 2017년에 실시된 국가직 7급 시험들보다 문화사 출제 비중이 다소 높았으며, 사회사에서는 1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 또한 최근 국가직 7급 시험과 마찬가지로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고난도 문제는 대부분 문화사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번 시험에서 변별력 있는 문항은 4~5문제 정도 되었다. **생소하거나 힌트를 찾기 어려운 사료와 선지를 제시한 7번(이이)과 10번(고려시대의 불교 승려들), 18번(녹읍) 문제가 어려웠으며, 지역적인 내용을 물어본 19번(중인들의 저술) 문제도 정답을 고르기가 쉽지 않았다**. 그 외에도 예송논쟁에 대해 물어본 8번 문제, 백제 역사 유적 기구에 대해 지역적으로 물어본 13번 문제, 주시경에 대해 패 낫선 자료를 제시한 16번 문제 등이 시험의 난이도를 높였다.

<출제 문항 유형 분석>



< 출제 문항 주제 분석 >

문항 번호	출제 분류	출제 주제	난이도
1	선사	고조선	하
2	근세 정치	조선 초기 국왕의 업적	중
3	근대 정치	2차 갑오개혁	중
4	현대 정치	통일 정책	하
5	일제 정치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하
6	근대 정치	1880년대 개화정책	중
7	근세 문화	이이	상
8	근세 정치	예송논쟁	중상
9	고대 정치	삼국의 정치적 발전	중하
10	중세 문화	불교(승려)	상
11	중세 정치	공민왕	하
12	근대 정치	최익현	중
13	고대 문화	백제 역사 유적 지구	중상
14	고대 문화	의상	중
15	고대 정치	금석문(+ 함경도 지역)	중
16	일제 문화	주시경	중상
17	일제 정치	민족 혁명당	중상
18	중세 경제	녹읍	상
19	근대 태동기 문화	중인들의 저술	상
20	근대 문화	신채호	중

< 고난도 문항 분석 >

분류	문항	출제 주제	특징
고난도 문항	7	이이	이이는 빈출 인물 중 한명이긴 하지만 역시 평범했으나 지금까지 등장한 적 없는 '율곡전서'의 글을 자료로 제시하여 물어봄으로써, 난이도를 매우 높인 것이 특징이다.
	10	고려시대의 불교 승려들	고려시대의 불교 승려 역시 빈출 주제지만, 자료의 표현이나 선지들은 매우 낯선 표현들로만 구성되어서 난이도를 매우 높였다.
	18	녹읍	녹읍에 대해 물어본 문제였지만 사료에서 녹읍을 유추해내기 힘들었으며, 선지들 중에서도 녹읍과 관련된 선지를 찾아내기가 매우 어려웠다.
	19	중인들의 저술	위항인(중인)들이 편찬한 시집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인데, 위항인과 관련된 서적들을 선지에 제시해서 함정에 걸려들기 쉽도록 문제를 구성하였다.

정답(나 책형 기준)

1. ④	2. ②	3. ①	4. ③	5. ③
6. ③	7. ④	8. ④	9. ④	10. ①
11. ③	12. ③	13. ①	14. ②	15. ②
16. ②	17. ①	18. ①	19. ④	20. ①

1. 고조선

정답 : ④

㉠은 고조선이다. ④ 고조선의 8조법에 대한 설명으로, 현재는 3개 조항만 전해지고 있다.

오답분석 : ① 부여, ② 동예, ③ 신라에 대한 설명이다.

(2019 해법국사 1권, 고조선, 45~48쪽 / 여러 나라의 성장, 50~56쪽 / 초기 신라, 78쪽)

(2018년 필기노트, 고조선의 건국과 발전 13쪽)

2. 조선 초기 국왕

정답 : ②

② 창경궁은 성종 때 처음으로 설립되었다.

오답분석 : ① 태조는 한양으로 천도한 이후 이곳의 기반 시설을 갖추고 이름을 한성부라고 하였다. ③ 세종은 젊은 학자들에게 휴가를 부여하여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가독서제를 실시하였다. ④ 세조는 불교의 진흥을 위해 간경도감을 설치하고 불경을 간행하였다.

(2019 해법국사 1권, 조선 태조, 339쪽 / 세종, 343쪽 / 세조, 345쪽 / 조선 전기 건축, 445쪽)

(2018년 필기노트, 조선 전기 주요 국왕의 업적 64쪽)

3. 2차 갑오개혁

정답 : ①

① 2차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1895년에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되어 여러 학교들이 설립되었다.

오답분석 : ②③④ 모두 1차 갑오개혁 때 실시된 정책들이다.

(2019 해법국사 2권, 제1차 2차 갑오개혁 652~654쪽)

(2018년 필기노트, 갑오개혁과 을미개혁 120쪽)

4. 7·4공동성명~남북기본합의서 시기의 사실 정답 : ③

(가)의 '7·4 남북 공동 성명'은 1972년에 발표되었고, (나)의 '남북 기본 합의서'는 1991년에 발표되었다. ③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에 발발하였다.

오답분석 : ① 4·19 혁명은 1960년에 발발하였다. ② 금융실명제는 1993년 김영삼 정부 때 시행되었다. ④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1967년 박정희 정부 때 시작되었다.

(2019 해법국사 2권, 4·19 혁명, 904쪽 / 5·18 민주화 운동, 917쪽 / 김영삼 정부, 923쪽 / 통일 정책, 943~945쪽 / 현대의 경제 성장, 956쪽)

(2018년 필기노트, 통일정책과 북한의 변화 165~166쪽)

5. 1940년대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답 : ③

㉠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1941년에 발표되었다. ㉡ 대일 선전 포고는 태평양 전쟁 발발 직후인 1941년에 선포되었으며, 이후 임시 정부 산하의 부대인 한국 광복군이 연합군과 합동 작전을 전개하였다.

오답분석 : ㉠ 한인 애국단은 1931년에 설립되었다. ㉡ 국무령 중심의 의원내각제는 1925년~1927년 동안 실시되었다.

(2019 해법국사 2권, 임시 정부의 재정비, 781쪽 / 한인 애국단, 795쪽 1940년대 무장 독립 전쟁, 809~810쪽)

(2018년 필기노트,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과 활동 139~140쪽)

6. 초기 개화 정책(1880년대)

정답 : ③

㉠ 김윤식을 필두로 한 영선사 일행은 1881년 청나라 텐진에 파견되어 무기 제조법 등을 배웠다. 이들이 귀국한 이후 1883년 서울에 기기창이 설립되었다. ㉡ 보빙사는 1883년 미국에 파견된 사절단으로, 미국 대통령 아서까지 접견하고 돌아왔다.

오답분석 : ㉠ 교정청은 1894년 동학 농민 운동 당시 정부가 설치한 개혁 기구이다. ㉡ 김홍집은 조사시찰단이 아니라 1880년 2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어 '조선책략'을 가지고 돌아왔다.

(2019 해법국사 2권, 초기 개화 정책, 628~629쪽 / 동학 농민 운동, 647쪽)

(2018년 필기노트, 위정척사와 개화 115~116쪽)

7. 이이

정답 : ④

제시된 자료는 율곡 이이의 사후 그 제자들이 모여 편찬한 '율곡전서'에 등장하는 글로, 당시의 정치적 문란과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천명을 연속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개혁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④ 이이는 '기자실기'를 저술하였다.

오답분석 : ① 소식, ② 이항, ③ 박세무에 대한 설명이다.

(2019 해법국사 1권, 역사서와 통치기록, 437쪽 / 성리학의 융성, 454~456쪽)

(2018년 필기노트, 성리학의 융성 89쪽)

8. 예송 논쟁

정답 : ④

제시된 자료는 1차 예송논쟁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④ 1차 예송논쟁 결과 서인의 주장에 따라 기년복(1년복)이 채택되었다. 당시 서인들은 '국조오례의'가 아니라 '주자가례'나 '가례집람' 등을 예시로 들면서 왕도 사대부의 예와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답분석 : ① 자의대비는 인조의 계비인 조대비를 가리킨다. ② 남인 출신의 윤류는, 효종이 왕위를 이었으면 적장자임을 주장하며 왕실의 예에 따라 3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서인 출신의 송시열은, 효종이 왕위를 이은 적자(체)이지만 정통성을 잇는 장자(정)가 아닌 체이부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년복을 입을 것을 주장하였다.

(2019 해법국사 1권, 현종, 367쪽)

(2018년 필기노트, 17세기 정치의 전개 72쪽)

9. 삼국의 발전

정답 : ④

신라의 '국사' 편찬은 진흥왕 때인 545년의 일이다. → (가) → 고구려의 '신집' 편찬은 영양왕 때인 600년의 일이다. ④ 노리사 치계는 백제 성왕 때인 552년에 일본에 파견되었다.

오답분석 : ① 고구려 장수왕은 475년에 한성을 점령했다. ② 400년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침략으로 금관가야가 가야연맹 내 주도권을 상실하였다. ④ 법흥왕 때의 일이다.

(2019 해법국사 1권, 가야 연맹, 79쪽 / 삼국의 발전, 83~90쪽 / 역사서 편찬, 169쪽)

(2018년 필기노트, 고대 역사서 편찬 35쪽)

10. 고려의 승려들

정답 : ①

(가)는 요세, (나)는 지눌, (다)는 균여, (라)는 의천이다. ① 요세가 아니라 지눌에 대한 설명이다. 지눌은 중국 화엄종에서도 비주류에 속하는 이통현의 화엄사상에 영향을 받아 화엄과 선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화엄도 돈오(頓悟: 단번에 깨달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선교통합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오답분석 : ② 지눌은 선체교용, 즉 선을 근본으로 삼고(體) 교는 수단으로 삼아서(用) 선교를 합일할 것을 주장하였다. ③ 균여는 화엄사상의 입장에서 법상종을 포용하기 위해 성상윤회라는 사상을 제시하였다. ④ 의천은 균여의 화엄학은 교학(이론)만 있고 실천이 결여되어있다고 균여를 크게 비판하였다.

(2019 해법국사 1권, 고려 불교의 발전, 294~296쪽)

(2018년 필기노트, 고려의 승려 58쪽)

11. 공민왕

정답 : ③

이색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임명하고 성리학의 중흥을 꾀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해당 시기의 국왕이 공민왕임을 알 수 있다. ③ 공민왕은 신돈을 등용하여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다.

오답분석 : ① 정동행성은 충렬왕 때 설치되었다. ② 충목왕에 대한 설명이다. ④ 각염제는 충선왕 때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2019 해법국사 1권, 원의 내정 간섭, 235쪽 / 고려의 개혁 정치, 237~239쪽)

(2018년 필기노트, 원간섭기의 개혁정치 50쪽)

12. 최익현

정답 : ③

제시된 자료는 을사조약 체결 이후 최익현이 의병을 일으키면서 작성한 격문의 내용이다. ㉠ 최익현은 정부 진위대와의 전투에서 동포와 싸울 수 없다며 스스로 부대를 해산하고 포로가 되었다. 이후 대마도에 유배되었는데 그곳에서 단식하다가 순국하였다. ㉡ 최익현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기 직전, 왜양 일체통을 내세워 개항에 반대하는 5불가소를 올렸다.

오답분석 : ㉢ 민중식에 대한 설명이다. 최익현은 전북 태인에서 거병하여 순창으로 진출하였다. ㉣ 허위 등에 대한 설명이다.

(2019 해법국사 2권, 위정척사 운동, 624쪽 / 을사조약에 대한 저항과 을사 의병, 682쪽 / 정미의병과 의병 전쟁의 의의, 683쪽)

(2018년 필기노트, 위정척사 운동 116쪽)

13. 유네스코 문화유산(백제 역사 유적 지구) 정답 : ①

백제 역사 유적 지구는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3개 지역에 분포된 8개 고고학 유적지로 이루어져 있다. 부여군에 속하는 문화유산으로는 부여 사비성과 관련된 관북리 유적(관북리 왕궁지) 및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 고분군, 부여 나성 등이 있다.

오답분석 : ㉢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은 공주시에 속하는 문화유산이다.

(2019 해법국사 2권, 해법 더하기, 20쪽)

(2018년 필기노트, 유네스코 문화유산 111쪽)

14. 의상

정답 : ②

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그'는 의상이다. 의상은 문무왕이 큰 공사를 일으켜 도성을 새로이 정비하려 할 때 백성을 위해 이를 만류하였다고 한다. ② 의상은 당나라에 유학을 가서 화엄종의 교조인 지엄에게 화엄학을 배우고 귀국하였다. 이후 경주 영주에 부석사를 창건하고 해동 화엄종의 시조가 되었다.

오답분석 : ① 원효, ③ 원측에 대한 설명이다. ④ 도의는 가지산파를 개창하고, 선종을 널리 보급하였다.

(2019 해법국사 1권, 고대의 불교, 162~164쪽)

(2018년 필기노트, 고대의 승려 33쪽)

15. 금석문(+함경도 지역사)

정답 : ②

제시된 자료는 옥저의 장례 풍습에 대한 내용이다. 옥저는 함경남도에 위치하고 있었다. ② 황초령비는 신라 진흥왕 때 함경도에 진출하여 세운 비석이다.

오답분석 : ① 창녕비는 경상남도 창녕군에 세운 비석으로, 진흥왕 때 비사벌국(비화가야)을 점령한 후 건립하였다. ③ 백제의 사택지적비는 부여에서 발견되었다. ④ 충주 고구려비는 현재 충주에 건립된 비석으로, 고구려의 남한강 유역 진출을 보여주고 있다.

(2019 해법국사 1권, 옥저와 동예, 55쪽 / 신라의 발전, 92쪽)

(2018년 필기노트, 주요 금석문 22쪽)

16. 주시경

정답 : ②

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그'는 주시경이다. ② 주시경은 국어 표기법과 음운에 대해 연구한 후 '국어문법' 등을 저술하여 국어 연구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오답분석 : ①④ 1931년에 조직된 조선어 학회의 활동에 대한 설명이다. 주시경은 조선어 학회가 조직되기 이전인 1914년에 사망하였다. ① 1931년에 조직된 조선어 학회는 우리말 큰 사전의 편찬을 시도했으나, 일제의 방해로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해방 이후 한글 학회에서 우리말 큰 사전을 완간하였다.) ④ 1931년에 조직된 조선어 학회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어 조선어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③ 조선어 연구회는 1921년 장지연, 이윤재, 최현배 등에 의해 창립되었다.

(2019 해법국사 2권, 국학 연구, 731쪽 / 한글의 연구와 보급, 851쪽)

(2018년 필기노트, 국학 연구 131, 국어 연구 151쪽)

17. 민족 혁명당

정답 : ①

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이 단체’는 1935년에 결성된 민족 혁명당이다. ① 1935년 통일 전선 정당으로써 민족 혁명당이 조직되어 임시정부의 해체를 요구해 오자, 김구 등은 이에 불응하고 새로운 정당으로서 한국 국민당을 창립하였다.

오답분석 : ② 민족 혁명당 산하의 군사 조직은 동북 항일 연군이 아니라 조선 의용대이다. ③ 김원봉을 비롯한 의열단 계통의 인사들이 민족 혁명당을 주도하자, 이에 지청천, 조소앙, 계열 등은 탈퇴하였다. ④ 김구의 한국 국민당, 조소앙의 한국 독립당, 지청천의 조선 혁명당의 통합으로 만들어진 단체는 한국 독립당이다.

(2019 해법국사 2권, 1930년대 무장 독립 전쟁, 807~808쪽 / 1940년대 무장 독립 전쟁, 809쪽)

(2018년 필기노트, 의열 투쟁 142쪽)

18. 녹읍

정답 : ①

제시된 자료는 934년 5월에 고려 태조가 예산진(禮山鎭)에 행차하여 내린 조서이다. 자료의 ㉠에 해당되는 토지는 녹읍이다. ① 녹읍은 신라시대부터 실시된 토지제도이다.

오답분석 : ② 녹읍은 지급받은 자가 해당 지역의 농경지로부터 조세를 징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의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었다. ③ 녹읍은 가호의 수를 단위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지역 단위로 지급된 토지이다. ④ 녹읍은 고려 초기 무렵에 폐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19 해법국사 1권, 토지 제도의 정비, 133쪽)

(2018년 필기노트, 고대의 토지제도 29쪽, 전사과 제도 52쪽)

19. 중인들의 저술

정답 : ④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중인과 서얼층이 많은 재산을 모아 신분 상승 추세가 나타나면서 이른바 위향인으로 불리는 중인의 문학이 태동하였다. 위향인들은 인왕산, 청계천 등지에서 시사를 결성하여 문학 활동을 했으며, 시집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위향인들이 간행한 대표적인 시집으로 ‘청구영언’, ‘해동가요’, ‘해동유주’, ‘소대풍요’, ‘풍요속선’ 등이 있다. ④ 고시언이 저술한 ‘소대풍요’는 위향인들의 시만을 모은 시집이다.

오답분석 : ① 유몽인의 ‘어우야담’은 야담·잡기류의 문학 작품으로, 유몽인은 중인·서얼 출신이 아니었다. ② 현종 때 중인 이진홍이 편찬한 ‘연조귀감’은 향리의 역사를 서술한 책이다. ③ 조희룡이 저술한 ‘호산외기’는 기예나 공로가 뛰어나면서도 신분이 낮아 출세하지 못한 위향인들의 전기를 모은 것이다.

(2019 해법국사 1권, 한글 소설과 사실시조, 576~577쪽)

(2018년 필기노트, 중인들의 문학 109쪽)

20. 신채호

정답 : ①

제시된 자료는 신채호가 대한매일신보에 연재한 ‘독사신문’의 내용이다. ① 신채호는 ‘을지문덕전’, ‘최도통전’, ‘이순신전’ 등 애국 명장에 대한 전기를 저술하여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오답분석 : ② 박은식, ③ 정인보, ④ 문일평에 대한 설명이다.

(2019 해법국사 2권, 국학 연구, 732쪽 / 한국사의 연구, 847~848쪽)

(2018년 필기노트, 국학운동의 전개 150쪽)